

사우디 정권이양과 석유시장 전망



이 문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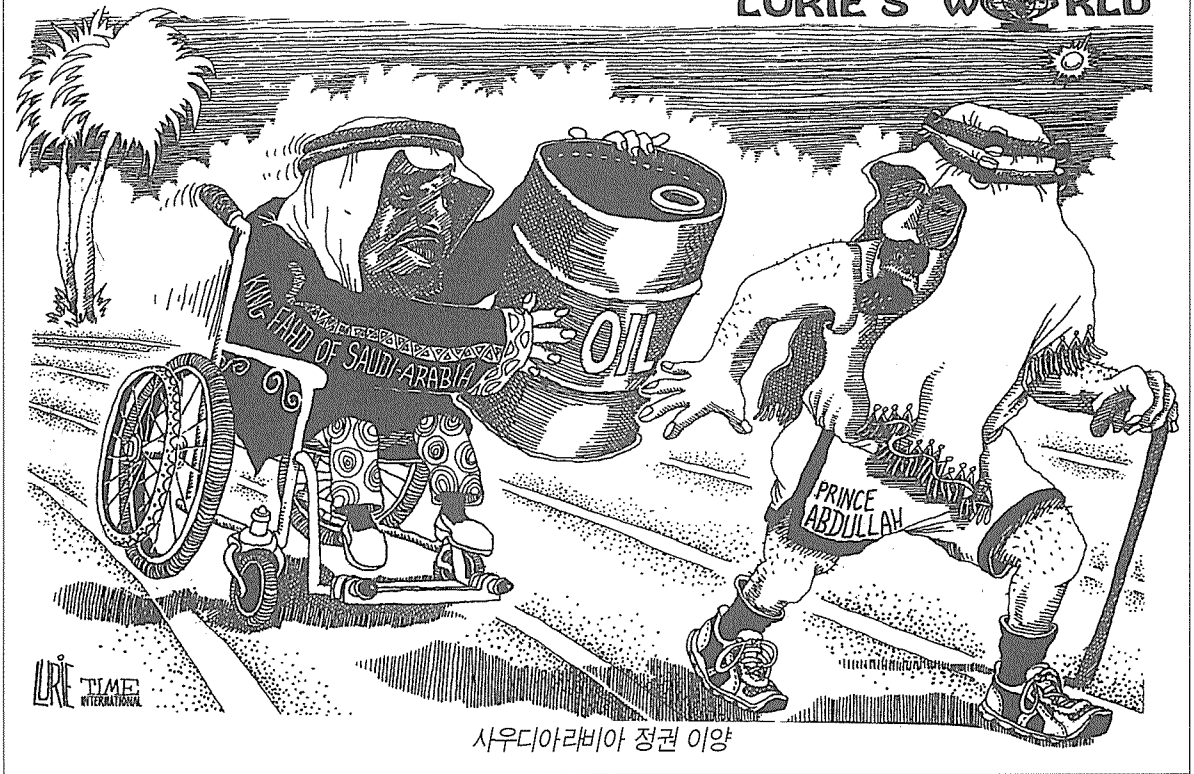
〈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분석실장 〉

사

우디아라비아의 파드 국왕이 새해 첫날 그의 이복동생인 압둘라 왕세자에게 정부업무(Gov't Affairs) 일체를 이양함으로써 년초 석유대국 사우디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번 정권이양은 「파드 국왕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휴식기간 동안」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지만 그의 건강이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고 전해지면서 실질적인 정권이양으로 해석하려는 보도들도 소개되었다. 정권이양이 주목을 받게된 배경은 후계자인 압둘라 왕세자가 범아랍주의 성향의 강경보수주의자라고 알려져서 사우디의 석유정책이 기존의 온건정책으로부터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였다. 이같은 우려는 올해 첫주말 미국 동북부지역에 몰아닥친 폭설, 한파와 함께 국제석유시장에서 유가 급등 사태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파드 국왕은 지난해 11월 30일 사우디 리야드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2월 7일에 퇴원하였다. 그의 입원은 처음 정기적인 건강진단이라고 공식 발표되었으나, 입원기일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그의 위독설이 알려지게 되었다. 파드 국왕의 치료를 위해 사우디에 급파되었었던 일단의 미국 의사진들도 그의 병세가 당초에 알려진 것 보다 심각한 상태 라고 전하고 있다. 올해 73세인 국왕은 그동안 비만과 당뇨병 그리고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아왔다고 알려졌다. 압둘라 왕세자(72세)는 지난 1982년 파드 국왕이 그의 형인 할리드 국왕으로부터 왕위를 계승하면서 후계자로 지명되었으며, 지난해 11월말 국왕의 입원으로 사우디 권력 전면에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압둘라 왕세자는 그동안 부수상과 국방수비대 장관을 겸임해왔다. 그는 사우디 전통과 회교적 기반의 정통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인물로 평소 국내와 인접



사우디아라비아 정권 이양

아랍권의 강경보수세력들로부터도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때 그는 사우디와 미국간 군사적, 외교적 측면에서의 밀착된 동맹관계를 비판해왔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왕세자의 이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권으로 반드시 반미 또는 미국과의 외교적 대립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실용적인 노선을 택하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국정을 위임받은 압둘라 왕세자의 정치적 지도력은 파드 국왕에 비하여 아직은 여러면에서 미지수로 평가되고 있다. 실무형인 파드 국왕에 비하여 압둘라 왕세자는 담당 각료에게 의존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왕위계승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권력구조내의 조정이나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석유정책이나 외교등 주요 정책은 기존의 노선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압둘라 왕세자의 왕위계승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중동 전문지는 『왕세자에게 실권은 주어졌지만 아직 국왕으로 즉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이번 기회가 그에게는 왕위계승의 테스트를 받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3대의 파이잘 국왕(1964~1982)은 그의 왕세자 시절인 50년대에 사우드왕(1953~1964)을 대신하여 국정집무를 하였으며, 사우드 국왕은 무절제한 세출 확대와 환율정책의 실패 등 실정으로 사실상 해임되었던 적이 있었다. 만일 이번 왕세자의 집권이 파이잘 왕세자의 경우와 같이 성공적이

올해 첫주말
사우디의 정권이양과
미국 북동부에
몰아닥친 폭설등으로
유가 급등사태를
가져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억달러)

	1991	1992	1993	1994
GDP	117.9	121.4	122.6	123.4
(석유 점유율)	(37.9)	(38.8)	(37.2)	(36.7)
수출(fob)	47.6	47.0	44.9	41.5
수입(fob)	-26.0	-30.2	-25.9	-23.5
예산균형	na	-11.1	-12.4	-9.0
인구(백만명)	-16.49	-16.82	17.12	17.43
원유생산(백만b/d)	-8.18	-8.40	8.14	8.10

기를 기대하지만, 사우드 국왕과 같이 왕가 내부의 비판을 받게되면 왕위 계승의 목전에서 물러서야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왕가 소식통은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압둘라 왕세자는 당분간 파드 국왕의 기존 정책을 크게 전환시켜 비판을 받을만한 위험은 무릎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권이양 이후 사우디의 석유정책에 대하여 『가격안정을 최우선으로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파드 국왕은 80년대 중반 아마니 석유장관을 해임한 이후, 국제전화로 니제르 장관을 불러 관련 사항을 일일이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압둘라 왕세자는 당분간은 누아이미 석유장관의 의견을 존중하는 업무처리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외교면에서는 왕세자와 아랍민족주의자들과의 대화는 예상할 수 있겠지만, 현재 최상의 우호관계인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급격하게 전환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정면에서 70대인 왕세자가 구세대 정권하에서 젊은 왕족들과의 조화와 균형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도 해결하여야할 과제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의 석유매장량(약 2,612억배럴, 점유율 약 25%)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제1위 석유생산국(약 800만b/d 규모, 점유율 약 12%)이다. 사우디의 석유산업은 1938년 최초 석유발견 이래 미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아래 미국계 메이저인 *Aramco*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70년대와 80년대에 사우디화를 추진시켜 1988년 국영석유사로 *Saudi Aramco*를 설립하게 되었다. 석유정책으로는 석유의존형 경제체제를 배경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석유시장의 안정확보를 통해 초장기에 걸친 석유의존의 가능성을 도모하는 외에 그때그때 안정적인 석유수입의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즉 사우디의 기본적인 석유정책은 장기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안정 지향의 온건한 정책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국의 석유소비 이탈 방지와 석유수요 확대를 겨냥하여 저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장점유율과 석유수입 확보를 추구하는 「저유가, 증산지향의 석유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OPEC내에서는 회원국의 여론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최근에는 *Swing-Producer*로서의 역할을 거

압둘라 왕세자로의 정권이양이후 그는 『가격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부하고 협조감산을 주장하고 있다.

1996년 올해 세계 석유수요는 작년보다 약 2.3% 늘어난 하루 7,150만배럴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올해의 세계 석유수급밸런스를 추정해 보면, 올 한해 세계석유시장은, OPEC가 산유량을 2,500만b/d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년평균 하루 50만배럴 이상의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비수기인 2/4분기와 3/4분기에는 하루 백만배럴 이상의 공급초과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이같은 수급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상요인으로는 우선 OPEC가 산유량 쿼터(하루 2,452만 배럴)의 준수와 감산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감산합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쿼터 추가 연장 가능성은 높다. 둘째로 기상이변에 의한 한파나 가뭄, 더위 등의 영향을 들 수 있다. 특히 근년에 들어와 자주 발생하는 대기권 환경오염이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세계적 기상이변 현상은 석유수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OPEC를 포함 주요 산유국에서의 정정불안이나 권력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으며, 유전이나 정유소에서 의 사건 사고 등이다. 유가약세 요인으로는 우선 세계 석유시장에서의 수급상황이다. 기본적으로 특히 비수기인 2/4분기와 3/4분기에 큰폭의 공급초과 현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라크의 석유수출 재개 가능성이다. 전면재개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유엔이 이미 제시해 놓은 부분적 수출 허용안에 합의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경우 OPEC 쿼터량과는 별도로 추가 공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 하락폭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OPEC 회원국의 쿼터를 위반한 초과생산이다. OPEC의 쿼터정책 변화는 6월총회에서 최대 이슈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상의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년초의 유가 강세 상황은 다음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승세가 지속될 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강세요인이 내달까지는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본적으로 수급상 애로요인은 발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석유소비 비중이 큰 미국과 서유럽에서의 혹한 예보는 년초에 현실로 나타나 난방유를 주축으로한 석유제품의 소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유소들이 수요폭증에 대응하여 등유와 경유등 중질유분 제품생산을 극대화하려는 경향도 현재 유가강세를 유도하고 있고, 또 사우디의 정권이양에 따른 석유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현재의 강세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해의 년평균 유가수준을 OPEC 바스켓 가격을 기준으로 배럴당 14-16달러로 예상해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전망은 년초 시장에서의 강세 출발로 고유가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앞서의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전망치의 대폭적인 수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㉟

사우디의
정권 이양으로 인한
국제 석유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